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Analysis about Developmental Difference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Judgment for, and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Types of Lies

박영아*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Park, Young-Ah

Dept. of Child Studies, Daej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evelopmental differences of moral evaluation for different lies. The subjects were 170 6-, 8-, and 10-year-ol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judgment for, and emotional reactions to antisocial lie, white lie, and trick lie were asses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Children's understanding of lies was increased with age. Children understood well in definition for antisocial lie, whereas they understood poorly in definition for trick lie. 2. There were differences of children's moral judgment for lies according to age and lie types. Six- and 8-year-olds rated trick lie as the least serious lie type, whereas 10-year-olds rated white lie as the least serious lie type. 3. Children anticipated the greatest negative emotional reaction to antisocial lie, and the greatest positive reaction to trick lie by all ages. There was no difference of positive emotional reaction between antisocial lie and white lie for 6- and 8-year-olds. But 10-year-olds anticipated greater positive emotional reaction to white lie than antisocial lie.

Key Words : antisocial lie, white lie, trick lie, moral judgment, emotional reactions

I. 서론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행동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일련의 행동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된다.

도덕성 발달의 영역 중에서 거짓말은 주요 연구주제로서 Piaget의 연구 이후 아동이 어떻게 거짓말과 참말의 개념을 정의하며,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의도성에 근거하여 거짓말과 참말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인지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Piaget(1932/1965: Bussey, 1992에서 재인용)는 6-10세 아동들은 사실이 아닌 말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인 거짓 진술과 비의도

적인 거짓 진술을 구별하지 못하다가 10세 이후에야 의도성이 있는 거짓 진술을 거짓말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어린 아동들은 벌을 받는 거짓말은 나쁘게 평가하고 벌을 받지 않는 거짓말은 나쁘게 평가하지 않지만, 연령이 높은 아동은 벌과 관계없이 거짓말을 나쁘게 평가하여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만이 거짓말을 규정하는 유일한 잣대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거짓말은 의도적인가 비의도적인가 또는 좋은 의도인가 나쁜 의도인가와는 상관없이 '진실이 아닌 말'로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Bok, 1978). 예를 들어,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의 연구에서 11세 아동의 95%는 과장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였고, 성인의 30%는 말실수를 거짓말이라고 구분하였다. 이 결과는 의도 뿐 아니라 상황이나 개인적 믿음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 Corresponding author: Young-Ah, Park
Tel: 031) 539-1645, Fax: 031) 539-1640
E-mail: parkya@daejin.ac.kr

시사한다.

거짓말은 자신의 행동이 처벌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인지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도덕성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가진 실용적 기능을 분석하는 화행론(Speech Act Theory)에서는 거짓말이 의사소통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Lee, 2000).

거짓말은 유형에 따라 크게 반사회적 거짓말(antisocial lie),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유희적 거짓말(trick lie)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반사회적 거짓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거짓말로 정의될 수 있다. 선의의 거짓말은 의도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없는 거짓말로서, 친절과 배려라는 긍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므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유희적 거짓말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를 가진 재미로 하는 거짓말을 뜻한다(Bussey, 1999).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은 매우 어린 시기부터 발달하여 2세가량의 어린 아동도 참과 거짓을 이해하기 시작한다(Perner, 1997). 4세가 되면 벌을 받지 않는 거짓말보다 벌을 받는 거짓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거짓말과 참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Bussey, 1992). 또, 선의의 거짓말은 3세가량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다가(Talwar & Lee, 2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빈번하게 사용되며 특히 학령기 이후에 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달된다(Talwar, Murphy, & Lee, 2007).

거짓말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판단은 거짓말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4, 8,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Bussey(1999)의 연구와 5, 8, 9, 11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Peterson 등(1983)의 연구의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처럼 도덕적 판단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Bussey(1999)는 매우 어릴 때부터 거짓말에 대한 처벌과 비난을 통해 거짓말과 참말을 평가하는 것을 학습하며, 선의의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6, 8, 10세를 대상으로 한 Walper와 Valtin(1992)의 연구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6세와 8세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10세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정서 또한 거짓말의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Bussey(1999)는 특정 행동을 한

후에 갖게 되는 정서가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제시되는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한 아동이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정서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중 어떤 것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내적인 평가반응으로서의 정서가 거짓말에 대한 다른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 결과, 아동들의 부정적 정서 반응의 경우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가장 높았고,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 긍정적 정서 반응은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5세경이 되면 의도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김신옥, 1987; 김희주, 1988). 또,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들(선미정, 2005; 손은경, 2002; 이근옥, 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선의의 거짓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이근옥(2001)의 연구에서 5세와 7세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선미정(2005)의 연구에서 5-9세 아동들은 반사회적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 손은경(2002)의 연구에서 5, 8, 11세 아동들은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정서 반응은 선미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5-9세 아동 모두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응답한 아동의 수가 매우 적었고 미안하고 겁이 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반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기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하여 선미정(2005)은 우리나라 아동들은 유희적 거짓말을 그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유머를 발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짓 장난을 치는 문제행동으로 받아들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과 실용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린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도덕성을 다룬 연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평가를 다룬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연구들마다 도덕적 판단이나 정서 반응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발달적 변화를 간과하였거나, 이를 규명한 연구는 Walper와 Valtin(199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또한 선의의 거짓말에만 국한되어 다루어졌다. 거짓말의 평가에 있어 성차를 다룬 연구도 몇몇 연구(손은경, 2002; Bussey, 1992, 1999)에 지나지 않는다. 이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관련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탈중심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 도덕추론 능력 등의 사회인지측면에서 발달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거짓말 또한 사회인지발달의 영향을 받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른 발달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거짓말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되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만을 구분하도록 하여 거짓말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아동의 인식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측정함에 있어서 참과 거짓만을 판별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를 탐문함으로써 인식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짓말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과 거짓말에 대해 느끼는 정서 반응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의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규칙이 어떠한지, 그러한 의사소통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연령, 성별,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거짓말의 이해에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연령, 성별,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연령, 성별,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긍정적 정서 반응에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Y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아동(평균연령: 6년 3개월, SD=5.5개월) 50명(남아: 27명, 여아: 23명)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아동(평균연령: 8년 2개월, SD=3.4개월) 56명(남아: 27명, 여아: 29명), 4학년 아동(평균연령: 10년 3개월, SD=3.4개월) 64명(남아: 34명, 여아: 30명)으로서 총 170명의 아동들이었다.

이 아동들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발달적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던 연령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 연령차가 나타난 Walper와 Valtin(1992)의 연구대상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이었다.

2. 연구도구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등 세 가지 유형의 거짓말 상황이 묘사된 그림 카드를 10×15cm 크기의 흰 종이에 검은 색으로 테두리만을 그려 제시하였다. 그림 카드는 남아가 주인공인 경우와 여아가 주인공인 경우로 두 세트를 구성하여, 연구대상 아동의 성과 동일한 성의 아동이 주인공인 그림을 사용하였다.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은 Happé(1994)와 Bussey(1999)가 사용한 이야기이며, 유희적 거짓말은 Happé(1994)가 고안한 이야기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예비 검사를 거쳐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것으로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을 듣는 대상이 아동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도덕적 판단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선행 연구들(선미정, 2005; 손은경, 2002; 이근옥, 2001; Bussey, 1999)에서 이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거짓말의 대상은 고려하지 않고 아동에게 친숙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선정하였다.

각 거짓말 유형별로 그림 카드에 그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반사회적 거짓말:** 아동이 집 안에서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다. 엄마가 오셔서 누가 깨뜨렸냐고 물어보셨다. 아동은 개를 가리키며 “제가 깨뜨리지 않았어요. 저 개가 깨뜨린 것이에요”라고 대답했다.
- **선의의 거짓말:** 빵을 좋아하는 아동을 위하여 할머니께서 빵을 만들어주셨다. 빵을 먹어본 아동은 빵이 너무 맛이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께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자 아동은 “예,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했다.

- **유희적 거짓말:** 아동이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 갔더니 좋아하는 음식이 아주 많이 있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아동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친구에게 “이것 좀 봐. 내 배가 산이 되어 버렸어”라고 말했다.

1) 거짓말의 이해 수준

그림 카드를 제시한 다음, 그림 속의 아동이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아동의 응답을 질문지에 기록하였다. 이 때 아동이 거짓이라고 답하면,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반응을 함께 기록하였다.

2)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그림 속의 아동이 한 말에 대하여 얼마나 잘했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 Lee 등(1997)이 사용한 도구를 변형하여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 방식의 얼굴 그림을 제시하였다. 얼굴 그림은 찡그리고 우는 얼굴(매우 잘못했다), 약간 찡그린 얼굴(조금 잘못했다), 무표정한 얼굴(보통이다), 약간 밝게 웃는 얼굴(조금 잘했다), 아주 밝게 웃는 얼굴(매우 잘했다) 등 5개의 그림으로서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잘잘못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3)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그림 속의 아동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걱정이나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리커트 척도 방식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걱정되거나 속상하지 않다), 2cm(조금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4cm(많이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6cm(아주 많이 걱정되거나 속상하다) 길이로 4개가 그려져 있어서 그림 속의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추측하도록 되어 있었다.

4)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

그림 속의 아동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ussey(1992, 1999)가 사용한 리커트 척도 방식의 막대 그림을 제시하였다. 막대는 0cm(기쁘거나 즐겁지 않다), 2cm(조금 기쁘거나 즐겁다), 4cm(많이 기쁘거나 즐겁다), 6cm(많이 즐겁거나 기쁘다) 길이로 4개가

그려져 있어서 그림 속의 아동이 거짓말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추측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연구절차

1) 실험 실시

① 예비 실험

본 실험에 앞서 연구도구와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연령에서 10명씩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거짓말 과제의 연구도구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이야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야기들을 둘러주었다. 아동들이 이야기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지, 어떤 이야기에 더 친숙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보다 적합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거짓말 유형별로 한 가지씩 선정한 후, 내용의 일부를 개작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15분이었다.

② 본 실험

본 실험은 개별 아동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의 실시에 앞서 아동에게 학급이나 취미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라포를 형성하였다.

그 후 거짓말 과제를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각 유형에서 먼저 아동에게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림 속의 상황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런 다음 거짓말의 이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아이가 한 말은 사실이니 거짓말이니?”라고 질문하였다. 이 때, 아동이 거짓말이라고 답하면 “이 아이는 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라고 탐문하였다.

그 다음, 도덕적 판단을 묻는 얼굴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너는 이 아이가 한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1번 그림(찡그리고 우는 얼굴)에,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2번 그림(약간 찡그린 얼굴)에,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3번 그림(무표정한 얼굴)에,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면 4번 그림(약간 밝게 웃는 얼굴)에, 많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5번 그림(아주 밝게 웃는 얼굴)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설명해준 다음 아동에게 해당되는 그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막대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림 속의 아이는 그런 말을 하고 난 후 마음속으로 걱정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것 같니? 아주 많이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긴 막대(6cm)에,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긴 막대(4cm)에,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막대(2cm)에,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여기(0cm)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아동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막대 그림을 제시하고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림 속의 아이는 그런 말을 하고 난 후 마음속으로 기쁘거나 즐거운 마음이 들 것 같니? 아주 많이 그럴 것 같으면 제일 긴 막대(6cm)에, 많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으로 긴 막대(4cm)에,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그 다음 막대(2cm)에,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여기(0cm)에 동그라미를 해보자”라고 말해주고 아동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반응측정

① 거짓말의 이해 수준

그림 속 아동의 진술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Badenes, Estevan과 Bacete(2000)의 측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였다.

- 사실이라고 답하였을 때: 0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으나, 거짓말을 한 이유를 모른다고 답하였을 때: 1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으나,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였을 때: 2점
- 거짓이라고 답하였고, 거짓말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유를 설명했을 때: 3점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점과 3점으로 평정한 예를 들면, 반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면 내가 치워야 하니까 장난친 것이에요”에는 2점을,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한테 야단맞을 것 같아요”에는 3점을 부여했다.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다시는 음식을 안 해 주실까요요”에는 2점을, “거짓말이에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까요요”에는 3점을 주었다.

또, 유희적 거짓말의 경우 “거짓말이에요. 많이 먹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요”는 2점으로, “거짓말이에요. 친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 말이에요”는 3점으로 평정하였다.

아동의 응답에 대한 평정은 본 연구자와 한 명의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생이 실시하였으며, 두 평정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는 .95로 나타났다.

②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정그리고 우는 얼굴에 표시했을 때는 1점을, 약간 찡그

린 얼굴에는 2점을, 무표정한 얼굴에는 3점을, 약간 밝게 웃는 얼굴에 표시했을 때는 4점을, 아주 밝게 웃는 얼굴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에 대하여 좋게 평가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거짓말을 나쁘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아동이 표시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에는 1점을, 2cm 막대에는 2점을, 4cm 막대에는 3점을, 6cm 막대에는 4점을 주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

아동이 표시한 막대 그림에 대해 0cm는 1점으로, 2cm 막대는 2점으로, 4cm 막대는 3점으로, 그리고 6cm 막대는 4점으로 평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과 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거짓말의 유형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사후분석을 위해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과 도덕적 판단에서 반응의 질적 수준은 χ^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거짓말의 이해 수준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반응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반응의 차이는 반사회적 거짓말($\chi^2=13.50, p<.05$), 선의의 거짓말($\chi^2=48.57, p<.001$), 유희적 거짓말($\chi^2=38.79, p<.001$)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제시된 진술이 거짓이

<표 1>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 수준의 χ^2 검증 결과

빈도 (%)

거짓말 유형	연령	반응 내용					χ^2
		사실	거짓 설명 못함	거짓 부적절한 설명	거짓 맥락에 맞는 설명	합계	
반사회적 거짓말	6세	0 (.0)	5(100.0)	1 (50.0)	44 (27.0)	50 (29.4)	13.50*
	8세	0 (.0)	0 (.0)	0 (.0)	56 (34.4)	56 (32.9)	
	10세	0 (.0)	0 (.0)	1 (50.0)	63 (38.7)	64 (37.6)	
	전체	0 (.0)	5(100.0)	2(100.0)	163(100.0)	170(100.0)	
선의의 거짓말	6세	0 (.0)	12 (80.0)	22 (55.0)	16 (13.9)	50 (29.4)	48.57***
	8세	0 (.0)	3 (20.0)	12 (30.0)	41 (35.7)	56 (32.9)	
	10세	0 (.0)	0 (.0)	6 (15.0)	58 (50.4)	64 (37.6)	
	전체	0 (.0)	15(100.0)	40(100.0)	115(100.0)	170(100.0)	
유희적 거짓말	6세	5 (71.4)	9 (50.0)	29 (30.9)	7 (13.7)	50 (29.4)	38.79***
	8세	2 (28.6)	8 (44.4)	37 (39.4)	9 (17.6)	56 (32.9)	
	10세	0 (.0)	1 (5.6)	28 (29.8)	35 (68.6)	64 (37.6)	
	전체	7(100.0)	18(100.0)	94(100.0)	51(100.0)	170(100.0)	

*p<.05, ***p<.001

라고 옳게 구분하였다.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을 때 8세와 10세에서는 거의 모든 아동들이, 6세에서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행위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에서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 거짓말을 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을 때, 6세에서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아동이 많았다. 8세와 10세에서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아동이 큰 분포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들이 많이 분포하였다.

또,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6세는 거짓말의 이유에 대해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짓말이라고 구분하였으나 설명을 하지 못한 아동, 의도를 파악하여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아동의 순으로 분포가 많았다. 8세에서도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이 가장 많이 분포했으나, 그 다음으로 거짓말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 아동, 거짓말이라고 구분하였으나 설명을 하지

못한 아동의 순으로 많았다. 10세에서는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거짓말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나머지 반응 분포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 이해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으나 8세 이후에 정확한 응답을 하였다. 선의의 거짓말은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더 낮은 이해 수준을 보였으며, 이 또한 8세 이후에 높아졌다. 또, 유희적 거짓말은 거짓말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으며 10세 이후에 응답이 정확해졌다.

거짓말의 이해 수준이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주효과 및 이 둘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연령

<표 2>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M (SD)

측정 내용	거짓말 유형	6세			8세			10세			전체		
		남아 (n=27)	여아 (n=23)	합계 (n=50)	남아 (n=27)	여아 (n=29)	합계 (n=56)	남아 (n=34)	여아 (n=30)	합계 (n=64)	남아 (n=88)	여아 (n=82)	합계 (N=170)
이해 수준	반사회적 거짓말	2.74 (.76)	2.78 (.60)	2.76 (.69)	3.00 (.00)	3.00 (.00)	3.00 (.00)	3.00 (.00)	3.00 (.00)	3.00 (.00)	2.92 (.44)	2.94 (.33)	2.93 (.39)
	선의의 거짓말	2.07 (.68)	2.09 (.85)	2.08 (.75)	2.67 (.56)	2.69 (.60)	2.68 (.58)	2.91 (.29)	2.90 (.31)	2.91 (.29)	2.58 (.62)	2.60 (.68)	2.59 (.65)
	유희적 거짓말	1.85 (.86)	1.65 (.78)	1.76 (.82)	1.89 (.64)	2.00 (.71)	1.95 (.67)	2.65 (.49)	2.40 (.56)	2.53 (.53)	2.17 (.76)	2.05 (.74)	2.11 (.75)

<표 3>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 수준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 결과

측정 내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이해 수준	피험자 연령	30.78	2	15.39	36.60***
	피험자 성별	.14	1	.14	.34
	피험자 연령×성별	.46	2	.23	.34
	오차	68.95	164	.42	
	거짓말 유형	59.78	2	29.89	121.51***
	거짓말 유형×연령	9.57	4	2.39	9.72***
	거짓말 유형×성별	.39	2	.19	.78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67	4	.17	.68
	오차	80.69	328	.25	

***p<.001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거짓말의 유형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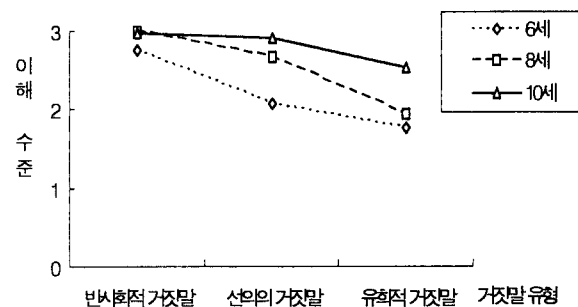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에 연령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이에 따른 Scheffé 사후검증의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F(2, 167)=7.34, p<.01$)은 6세와 8세($p<.01$), 6세와 10세($p<.01$)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선의의 거짓말($F(2, 167)=32.28, p<.001$)도 6세와 8세($p<.001$), 6세와 10세($p<.0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 두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8세 수준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희적 거짓말($F(2, 167)=20.88, p<.001$)은 6세와 10세($p<.001$), 8세와 10세($p<.0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10세에 이르러 이해 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그림 1]).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나 성별과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2.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반응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반응의 차이는 선의의 거짓말($\chi^2=38.73, p<.001$)과 유희적 거짓말($\chi^2=33.66, p<.001$)에서 유의하였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매우 잘못했다와 조금 잘못했다는 응답이 절대적이었다.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 6세에서는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금 잘못했다는 응답이 많았



[그림 1]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 이해 수준

다. 8세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잘못했다, 조금 잘못했다는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10세에서는 조금 잘못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조금 잘했다는와 매우 잘했다는 반응 또한 높은 분포를 차지했다.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6세 아동들은 조금 잘못했다, 보통이다, 매우 잘못했다는 순으로 반응이 많았고, 8세 아동들은 보통이다, 많이 잘못했다, 조금 잘못했다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 10세에서는 보통이다에 가장 많이 반응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잘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가장 부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 측정 변량분석의 결

<표 4>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χ^2 검증 결과 빈도 (%)

거짓말 유형	연령	반응 내용					합계	χ^2
		매우 잘못했다	조금 잘못했다	보통이다	조금 잘했다	매우 잘했다		
반사회적 거짓말	6세	29 (24.8)	17 (37.0)	1 (33.3)	1 (50.0)	2(100.0)	50 (29.4)	13.40
	8세	36 (30.8)	17 (37.0)	2 (66.7)	1 (50.0)	0 (.0)	56 (32.9)	
	10세	52 (44.4)	12 (26.1)	0 (.0)	0 (.0)	0 (.0)	64 (37.6)	
	전체	117(100.0)	46(100.0)	3(100.0)	2(100.0)	2(100.0)	170(100.0)	
선의의 거짓말	6세	23 (46.9)	17 (34.0)	7 (16.7)	3 (16.7)	0 (.0)	50 (29.4)	38.73***
	8세	19 (38.8)	13 (26.0)	20 (47.6)	1 (5.6)	3 (27.3)	56 (32.9)	
	10세	7 (14.3)	20 (40.0)	15 (35.7)	14 (77.8)	8 (72.7)	64 (37.6)	
	전체	49(100.0)	50(100.0)	42(100.0)	18(100.0)	11(100.0)	170(100.0)	
유희적 거짓말	6세	9 (29.0)	23 (60.5)	13 (17.3)	3 (13.6)	2 (50.0)	50 (29.4)	33.66***
	8세	14 (45.2)	10 (26.3)	25 (33.3)	6 (27.3)	1 (25.0)	56 (32.9)	
	10세	8 (25.8)	5 (13.2)	37 (49.3)	13 (59.1)	1 (25.0)	64 (37.6)	
	전체	31(100.0)	38(100.0)	75(100.0)	22(100.0)	4(100.0)	170(100.0)	

***p<.001

<표 5>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M (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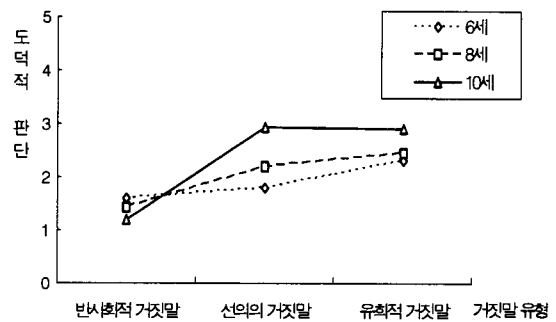
측정 내용	거짓말 유형	6세			8세			10세			전체		
		남아 (n=27)	여아 (n=23)	합계 (n=50)	남아 (n=27)	여아 (n=29)	합계 (n=56)	남아 (n=34)	여아 (n=30)	합계 (n=64)	남아 (n=88)	여아 (n=82)	합계 (N=170)
도덕적 판단	반사회적 거짓말	1.59 (.97)	1.61 (.94)	1.60 (.95)	1.22 (.42)	1.62 (.78)	1.43 (.66)	1.18 (.39)	1.20 (.41)	1.19 (.39)	1.32 (.65)	1.46 (.74)	1.39 (.70)
	선의의 거짓말	1.93 (.83)	1.65 (.98)	1.80 (.90)	2.26 (1.06)	2.17 (1.17)	2.21 (1.11)	2.76 (1.23)	3.13 (1.20)	2.94 (1.22)	2.35 (1.12)	2.38 (1.27)	2.36 (1.19)
	유희적 거짓말	2.44 (1.16)	2.17 (.72)	2.32 (.98)	2.15 (.91)	2.76 (1.09)	2.46 (1.04)	2.88 (1.04)	2.93 (.79)	2.91 (.92)	2.52 (1.07)	2.66 (.93)	2.59 (1.01)

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변량분석 결과,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주효과 및 이 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6세에서는 유희적 거짓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8세에서는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10세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인 도덕적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연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이에 따른 Scheffé 사후검증의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F(2, 167)=5.30, p<.01$)은 6세와 10세($p<.01$)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10세가 6세보다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의의 거짓말($F(2, 167)=15.86, p<.001$)에서는 6세와 10세($p<.001$), 8세와 10세($p<.01$)간에도, 유희적 거짓말($F(2, 167)=5.70, p<.01$)

에서도 6세와 10세($p<.01$), 8세와 10세($p<.05$)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 두 유형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10세가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2]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 6>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 결과

측정 내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도덕적 판단	피 험 자 간	연령	18.53	2	9.27	9.10***
		성별	1.09	1	1.09	1.07
		연령×성별	4.75	2	2.37	2.33
		오차	166.96	164	1.02	
	피 험 자 내	거짓말 유형	124.24	2	62.12	78.27***
		거짓말 유형×연령	37.18	4	9.30	11.71***
		거짓말 유형×성별	.52	2	.26	.33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5.07	4	1.27	1.60
		오차	265.76	334	.80	

***p<.001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나 성별과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

1) 부정적 정서 반응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정서 반응은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는 6세에서 많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다가 8세 이후 매우 많

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조금 걱정된다는 응답과 많이 걱정된다는 응답을 주로 하였으며,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조금 걱정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의 경우 10세에서 부정적 정서 반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이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반복 측정 변량분석의 실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이 둘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거짓말에 대한

<표 7>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M (SD)

측정 내용	거짓말 유형	6세			8세			10세			전체		
		남아 (n=27)	여아 (n=23)	합계 (n=50)	남아 (n=27)	여아 (n=29)	합계 (n=56)	남아 (n=34)	여아 (n=30)	합계 (n=64)	남아 (n=88)	여아 (n=82)	합계 (N=170)
부정적 정서 반응	반사회적 거짓말	2.81 (1.15)	3.17 (.94)	2.98 (1.06)	3.30 (.67)	3.28 (.80)	3.29 (.73)	3.38 (.85)	3.37 (.72)	3.38 (.79)	3.18 (.93)	3.28 (.81)	3.23 (.87)
	선의의 거짓말	2.56 (1.25)	2.65 (1.07)	2.60 (1.16)	2.85 (1.03)	2.59 (1.05)	2.71 (1.04)	2.47 (.99)	2.23 (.94)	2.36 (.97)	2.61 (1.09)	2.48 (1.02)	2.55 (1.06)
	유희적 거짓말	2.11 (1.19)	2.13 (1.06)	2.12 (1.12)	2.07 (1.11)	2.34 (1.11)	2.21 (1.11)	1.65 (1.01)	1.50 (.86)	1.58 (.94)	1.92 (1.11)	1.98 (1.07)	1.95 (1.08)

<표 8>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 결과

측정 내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부정적 정서 반응	피 험 자 간	연령	8.31	2	4.15	2.86*
		성별	.01	1	.01	.00
		연령×성별	1.78	2	.89	.61
		오차	238.11	164	1.45	
	피 험 자 내	거짓말 유형	131.17	2	65.58	86.46***
		거짓말 유형×연령	14.44	4	3.61	4.76**
		거짓말 유형×성별	1.34	2	.67	.89
		거짓말 유형×연령×성별	1.84	4	.46	.61
		오차	248.80	328	.76	

*p<.05, **p<.01, ***p<.001

부정적 정서 반응은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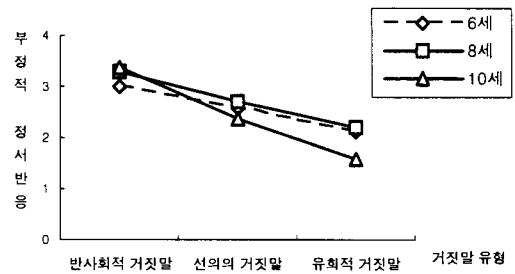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에 연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이에 따른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F(2, 167)=3.14, p<.05$)에서는 6세와 10세($p<.05$)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0세가 6세보다 더 강한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였다.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유희적 거짓말($F(2, 167)=6.44, p<.01$)에서는 6세와 10세($p<.05$), 8세와 10세($p<.01$)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10세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나 성별과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2) 긍정적 정서 반응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정서 반응은 반사회적 거짓말의 경우 기쁘지 않다고 조금 기쁘다는 응답을 주로 보였으며, 10세에서는 긍정적 정서 반응이 더 약하게 나타났다. 선의의 거짓말



[그림 3]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

에 대해서도 기쁘지 않다고 조금 기쁘다는 응답을 주로 보였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긍정적 정서 반응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정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많이 기쁘다는 반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반복 측정 변량분석의 실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과 같이 거짓말 유형에 따른 주효과와 거짓말 유형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6세와 8세는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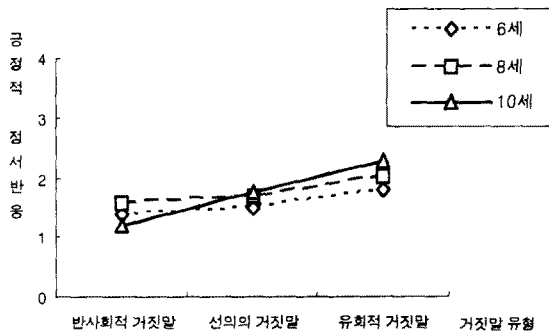
<표 9>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M (SD)

측정 내용	거짓말 유형	6세			8세			10세			전체		
		남아 (n=27)	여아 (n=23)	합계 (n=50)	남아 (n=27)	여아 (n=29)	합계 (n=56)	남아 (n=34)	여아 (n=30)	합계 (n=64)	남아 (n=88)	여아 (n=82)	합계 (N=170)
긍정적 정서 반응	반사회적 거짓말	1.52 (.94)	1.26 (.54)	1.40 (.78)	1.59 (.80)	1.55 (.63)	1.57 (.71)	1.18 (.39)	1.23 (.50)	1.20 (.44)	1.41 (.74)	1.35 (.58)	1.38 (.66)
	선의의 거짓말	1.63 (.93)	1.30 (.56)	1.48 (.79)	1.52 (.70)	1.86 (.79)	1.70 (.76)	1.79 (.73)	1.73 (.69)	1.77 (.71)	1.66 (.79)	1.66 (.72)	1.66 (.76)
	유희적 거짓말	2.04 (1.26)	1.52 (.67)	1.80 (1.10)	1.96 (.94)	2.07 (.88)	2.02 (.90)	2.29 (1.06)	2.23 (.90)	2.27 (.98)	2.11 (1.09)	1.98 (.88)	2.05 (.99)
	거짓말 유형												

<표 10> 아동의 연령과 성별,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 결과

측정 내용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긍정적 정서 반응	피형자간	연령	4.49	2	2.24	2.46
		성별	.88	1	.88	.97
		연령×성별	5.16	2	2.58	2.83
		오차	149.47	164	.91	
		거짓말유형	33.80	2	16.90	33.31***
		거짓말유형×연령	8.71	4	2.18	4.30*
		거짓말유형×성별	.43	2	.21	.42
		거짓말유형×연령×성별	1.26	4	.32	.62
		오차	166.44	328	.51	

*p<.05, ***p<.001



[그림 4]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 유형에 따른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10세에서는 유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가 많이 보고되었다.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에 연령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이에 따른 Scheffé 사후검증의 실시 결과, 반사회적 거짓말($F(2, 167)=4.85, p<.01$)에서는 8세와 10세($p<.01$)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8세가 10세보다 더 강한 긍정적 정서를 나타냈다.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회적 거짓말($F(2, 167)=3.22, p<.05$)에서는 6세와 10세($p<.0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10세가 6세에 비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한편,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 및 성별과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덕성의 주요 주제인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 도덕적 판단, 거짓말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연령차가 탐색되지 않았거나 연령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령 범위에 속하는 6, 8, 10세 아동들이었다. 거짓말은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회적 거짓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은 아동의 연령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거짓말의 유형별로는 모든 연

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반응 분포에서도 나타났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진술이 거짓임을 판별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6세 아동들도 행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에도 모든 연령에서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나 그 말이 왜 거짓인지를 인식하는 능력에는 연령차가 있었다. 6세에서는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8세 이후에서야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또, 유회적 거짓말은 6세와 8세에서는 거짓말의 이유에 대해 부정확한 설명을 한 아동이 가장 많았고, 적은 분포였지만 진술이 사실이라고 답한 경우도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10세에서는 거짓말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6세의 모든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가능했고, 유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거짓임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한, 6세 아동들은 거짓말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기에는 하였지만 대체로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5세 아동들이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참말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손은경(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반사회적 거짓말은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친숙한 문제 행동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에 비해 다른 유형의 거짓말들은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친숙하며, 더 높은 차원의 인식 능력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의 경우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 차원의 거짓말이라는 인식이 8세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회적 거짓말은 의사소통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세와 8세에서 다른 유형의 거짓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유회적 거짓말이 유머를 통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은 10세가 되어야 습득되는 것 같다.

둘째,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아동의 연령과 거짓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는 10세가 6세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선의의 거짓말과 유회적 거짓말에 대해서는 10세가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6세에서는 유회적 거짓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

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8세에서는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10세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희적 거짓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는 어린 시기부터 발달하는데 반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다가 10세에 이르러 다른 유형의 거짓말보다 잘한 행동으로 평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0세 아동들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평가가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난 Walper와 Valtin(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도덕적 판단에서의 연령간 차이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 이야기의 문맥을 이해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수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높은 연령의 아동들은 거짓말이 항상 부정적이기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이에 대한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의 유형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서 이처럼 연령차가 뚜렷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대해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들(손은경, 2002; 이근옥, 2001; Bussey, 1999; Peterson et al., 1983)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연령차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 판단을 묻기 이전에 거짓말에 대한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하게 도덕적 판단 질문에 앞서 진술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참인지 거짓인지만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판단에서 더 나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아동은 판단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개념을 인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인지적 과정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덕적 판단에서의 연령차는 거짓말을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에서의 발달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모든 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가장 강했고, 선의의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간에는 부정적 정서 반응에 차이가 없었던 Bussey(1999)의 연구 결과, 그리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 선미정(2005)의 연구 결과와 대조적이다.

또한, 거짓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반응은 6세와 8세에서는 유희적 거짓말에 대해 가장 강한 정서를 보고하였고, 반사회적 거짓말과 선의의 거짓말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 10세에서는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가 많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반사회적 거짓말의 순으로 긍정적 정서 반응이 높게 나타난 Bussey(1999)의 연구 결과나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난 선미정(2005)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정서 반응에서의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다른 결과는 유희적 거짓말에서 기인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희적 거짓말 이야기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야기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선미정(2005)은 Bussey(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익숙한 것으로 개작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친숙하고 적절한 유희적 거짓말 이야기가 즐거운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은 보다 약하게, 그리고 긍정적 정서 반응은 보다 강하게 보고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서 반응에서의 연령차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 반응은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는 10세가 6세보다 더 많이 보고하였다.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연령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10세가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 정서 반응은 반사회적 거짓말에서는 8세가 10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선의의 거짓말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희적 거짓말에서는 10세가 6세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반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6세와 8세는 선의의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해 더 강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유형간에 긍정적 정서 반응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때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했을 때보다 죄책감은 덜 하지만 좋은 감정을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를 통해 6세와 8세 수준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10세에서는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나쁜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의 순으로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에 수반되는 정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들

은 10세경에 이르러 특정한 정서 반응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 보다 분명한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고 좋지 못한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행동은 감소시키고 뿌듯하고 좋은 정서 반응을 가져오는 행동은 증가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거짓말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의 발달이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인지적 성숙이나 사회적 경험과 더불어 내적 평가 체계인 정서적 반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 및 성별과 관련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 반응에 있어서 성차가 주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거짓말 상황에 대한 아동의 평가에 있어서 그간 밝혀진 바가 없었던 연령간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였다는데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개념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고무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도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양육실체를 비롯한 환경 요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유희적 거짓말, 도덕적 판단, 정서 반응

참 고 문 헌

김신옥 (1987). 아동의 거짓말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주 (1988). 어린이의 거짓말 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미정 (2005). 의사소통 맥락에 따른 아동과 어머니의 거짓말에 대한 태도의 차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은경 (2002).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아동과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근옥 (2001).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아동들의 판단 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denes, L. V., Estevan, R. A. C., & Bacete, F. J. G. (2000). Theory of mind and peer rejection. *Social Development, 9*, 271-283.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s. *Child Development, 63*, 129-137.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 1338-1347.
 Happé, F. G. E.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Lee, K. (2000). Lying as doing deceptive things with words: A speech act theoretical perspective. In J. W. Astington (Ed.), *Minds in the making: Essays in honor of David R. Olson* (pp. 177-196). Oxford: Blackwell.
 Lee, K., Cameron, C. A., Xu, F., Fu, G., & Board, J. (1997).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evaluations of lying and truth tel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8*, 924-934.
 Perner, J. (1997). Children's competency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a witness: Truth, lies, and moral ti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S21-S35.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Talwar, V., & Lee, K. (2002). Emergence of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 160-181.
 Talwar, V., Murphy, S. M.,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11.
 Walper, S., & Valtin, R. (1992). Children's understanding of white lies. In W. Winter (Series Ed.), R. J. Watts, S. Ide, & K. Ehlich (Vol. Eds.), *Politeness in language: Studies i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pp. 231-251).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59*.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8. 7. 14 접수; 2008. 11. 5 채택)